

세계화 작업반 회의 참석

- 하병기 선임연구위원(산업경제연구실)

I. 출장자: 하병기 선임연구위원

II. 출장기간: 2011.5.18(수)~5.22(일)

III. 출장 지역: 프랑스 파리 OECD 본부

IV. 출장 목적: OECD산업혁신위원회 산업세계화작업반

V. 작업반 토의 내용

WPGI의 Mandate

○ WPIA(산업분석 작업반)와의 보완성과 중복성

- 세계화는 모든 것에 존재하여 중복성은 피할 수 없으며, 중복성으로 인해 상호 협력 필요성 필요

- 세계화는 특수한 성격이 있다는 점 고려

- Joint session 등으로 작업할 수 있고 장기적인 작업해야 한다는 점에서 WPIA와의 중복 불가피하다는 점을 위원회에 피력할 필요가 있음.

- 2011년 12월 기업혁신환경위원회 및 동 작업반의 mandate가 완료되므로 위원회가 mandate와 부속기관의 역할을 평가 중에 있음.

□ 글로벌 가치사슬(Gloval Value Chain; GVC)

- 2007년 OECD 연구 ‘Staying competitive in the global economy-moving up the chain’의 후속작업임.

- 애플 ipone4의 경우 중국이 미국에 169.4달러에 수출하지만, 부가가치는 6.5달러에 불과하여 평가에서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
- 한국의 부품이 80.1 달러 들어가는 등 중간재가 많이 투입되어 부가가치 기준으로 낮은 데도 대미수출이 169.4달러로 상정되어 수출에서 과대평가됨.

- 또한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도 단순한 수출액으로 보면 중국의 규모가 크지만, 부가가치 사슬 측면에서는 낮아 평가에서 괴리 현상이 발생함.

-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연구를 무역국과 공동으로(horizontal work) 2012년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있음.

- 생산분할(production fragmentaion)로 중간재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

로 기대되었으나, 전체 무역성장률과 중간재 무역 성장률간에 차이가 있어 통계적인 증거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음.

○ 미시적인 무역 통계, 산업연관표 분석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할 예정으로 있으며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망

○ 이와 관련하여 Eurostat는 GVC와 국제소싱(international sourcing)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.

- 2011년 9월 설문조사 시행하여 2012년 4분기에 분석 계획

- 현재 설문조사서를 작성 중이며 pilot survey후 설문조사서 완성 예정임.

○ 핀란드는 GVC 조사의 일환으로 NOKIA N95 핸드폰을 600여개의 부품을 해부하여 부가가치를 조사한 결과(애플 iphone4와 유사한 작업) 부가가치의 50% 정도가 유럽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파악

- 다른 모델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음.

○ GVC내에서 수출성과가 좋은 신흥국은 최종재를 수출하지만 이와 관련한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특히, 중국은 최종재 수출 점유율과 중간재 수입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.

- 특히, 수출 성과에서는 선진국은 내연적 성장(intensive growth: 기존 품목의 양적 성장)에 신흥국은 외연적 성장(extensive growth: 수출 품목 및 수출국가의 다양화)에 치중함.

- 수출경쟁력과 관련하여서는 개도국은 저품질, 선진국은 고품질 품목을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분석됨.

□ WPGI의 장래 작업

- GVC가 국제경쟁력 및 경제개발의 변천, 시장개방과 무역정책, 무역과 고용, 거시경제변수의 국가간 파급효과 등을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임.

-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파악, 주요 산업에 대한 실증 분석, value chain에 미치는 특정국가의 정책 등의 분석이 필요함.

- 이러한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OECD ORBIS DB에 소유권을 연결하는 작업과 국제기업집단의 파악

- 그리고 무역과 IO 표를 연관시켜 중간재 및 서비스무역의 수직적 분업형태를 파악하고자 함.

- 또한 iphone4분석과 같은 기업의 value chain에 관한 사례분석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이 회원국의 도움을 요청함.

- 새로운 성장원으로서 무형자산 투자가 중요하고 무형자산이 GVC에서의 국가별 위치매김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GVC 작업과 horizontal work라고 할 수 있음.

- 무형자산은 크게 컴퓨터화된 정보, 혁신관련 재산권, 경제적 측면의 경쟁력의 3가지로 선진국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GDP 산정에도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임.

□ 다국적 기업 활동 통계 분석

- 2008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기여도는 5-35%, 부가가치 기여도는 6-45%로 국가간에 차이가 있음.
 - 동구국가는 기여도가 높은 반면 거대국가인 미국, 일본, 스페인 등은 상대적으로 낮음.
 -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외투기업의 비중이 낮고, 첨단 및 지식 집약 산업에서 높음.
- 이스라엘은 외국인 투자 기업 및 해외투자 기업의 경제적 기여 분석 작업을 매2년 마다 시행하는 survey를 통해 한다는 사례를 보고 함.

□ 미시 데이터작업

- OECD와 Eurostat는 공동으로 미시통계를 기업등록DB(business register)와 연결시켜 기업특성별 무역 통계DB(TEC)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.
 - 무역통계에 기업의 ownership, 구매, 매출 등을 연결하는 작업임.
 - 서비스무역, 다국적기업의 무역, 기업내 무역, 부가가치 무역, 신규 무역업자의 수출 등을 포함시키려는 계획으로 있지만, 통계비밀주의(confidentiality)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이외에도 유럽국가간 기업 수출행태 결정 요인, 스웨덴의 GVC변화

가 구조변화에 미치는 효과 등의 현재 미시통계를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는 연구 사례를 소개하였음.

□ 다음 작업반 회의는 2012년 4월 26일(잠정) 예정임.

VI. 평가

- 현재 동 작업반에서는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구조에 대한 분석을 의욕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데,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경험이 많다는 점에서 참여가 필요함.
 - 중간재 교역에서 일본과의 적자 그리고 중국과의 흑자는 대표적 부가가치 사슬구조이고 부품소재육성정책은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.
- OECD가 수행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한국 통계가 제외되어 있어 향후 통계제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.
- OECD, Eurosta 등 국제기구가 다국적기업의 지분구조를 기업별 수출입 등과 연결시키는 미시적인 연구에 집중하고 있어 한국도 이에 대비하여 통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.
 - 이와 같은 미시적 연구는 그동안 비밀을 이유로 다루지 않았던 기업 고유의 통계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비밀을 유지하면서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법 및 통계의 정비가 필요함.